

# 익산시, 야간관광도시 도약 '최선'

국내 관광전문가들, '익산시 야간경제·관광 활성화 방안' 주제 포럼 개최

익산시가 야간관광 활성화로 관광도시로 가치를 더욱 높여나간다.

국내 대표적인 관광전문가들과 함께 해가 저도 떨어지지 않는 새로운 관광이 펼쳐지는 야간관광 콘텐츠를 개발하고 지역 특성과 연계해 익산 구석구석을 관광명소로 진화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시는 18일 국내 야간관광 관련 전문가와 민·관·학, 지역관광업체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익산시 야간경제·관광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에는 전)문화체육관광부 박양우 장관, 전)한국관광공사 민경석 국민관광본부장, 세계축제협회 아시아지부 정강환회장, 동아일보-채널A 대전총정취재본부 이기진본부장, 익산문화관광재단 김세만 대표, 배재대학교 김주호교수 등이 참석해 야간경제관광 선진국의 전략과 노하우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우선 민경석 전)한국관광공사 본부장은 '야간경제 관광활성화를 위한 트렌드 분석'을 주제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야간경제·관광에 대한 사례를 발표하며 익산시의 야간관광 정책 추진 및 야간관광 활성화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김주호 배재대학교 교수는 '익산시 야간경제·관광 활성화 방향'에서 익산역 인근 중앙동의 야간경제구역 조성, 야간개방·야간경관조명·나이트마켓(야시장)·푸드스트리트·상가연계전략 등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발표



익산시는 18일 국내 야간관광 관련 전문가와 민·관·학, 지역관광업체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익산시 야간경제·관광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다.

했다.

또한 다채로운 매력을 가진 익산시의 관광지와 연계한 야간형 콘텐츠 개발을 통해 익산 관광발전에 새로운 전략적 접근과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지역 내 관광수요 확대와 체류로 연결 시키기 위한 내용도 논의했다.

정강환 세계축제협회 아시아지부 회장은 "이번 포럼을 통해 익산시 야간경제관광 활성화를 위한 체계화된 전략과 중장기 계획의 수립에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다"며 "9월에 개최되는 미디어페스타와 익산 서동축제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겠다"고 덧붙였다.

정현을 시장은 "이번 포럼이 익산시의 야

간·경제 관광 활성화를 위한 초석을 다지고 야간관광도시로의 도약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2023년 '익산 방문의 해'를 성공적으로 운영하여 국내외 관광객 확보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시는 '익산서동축제', '익산문화재 야행', '미디어페스타' 등 다양한 야간형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있으며, 최근 익산시 야간경제·관광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는 등 야간경제·관광 활성화를 위한 노력과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나갈 예정이다.

/익산=이재춘 기자

## 권승호 교사 '청소년 고민 상담소' 출간

오는 8월 말 정년퇴직 예정인 전주영생고등학교 권승호 교사가 '청소년 고민 상담소'를 출간했다.



평소 학생들의 고민에 귀 기울여 온 저자는 교단을 떠나는 아쉬움을 책으로 달래고자 이 책을 펴냈다. 머리말에서 저자는 "자기만 이런 고민을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친구들도 똑같이 고민하고 있다는 사실을 통해 위로받을 수 있길 바란다"며 "이 책에서 제시한 해결책을 살피리 삼아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는 능력을 키워 가길 바란다"라고 했다.

이어 "이 책을 통해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지, 왜 사교육을 해서 안 되는지, 왜 지금 진로를 정하지 않아도 괜찮은지, 왜 어른들은 이성 교제를 늦추라 하는지, 우정 쌓기가 왜 중요한지, 부모님께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 알게 되고 생각해보면 참 좋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특히 저자는 "엄타리 답일 수 있다는 생각에 두려웠고, 땅속에 묻어버릴까 생각까지 했지만, 누군가에게는 고민 해결의 실마리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두려움에서 벗어



나갈 수 있는 등 불이 될 수 있다는 생각, 그리고 이런 책이 한 권쯤은 있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출간을 결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책을 읽다 보면 아이들의 가장 큰 고민은 '공부' '사교육'이고 '정신력 부족'과 '진로' '친구 관계', '이성 교제', '가족 관계'에 대한 고민도 크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될 것"이라며 "특별히 누구에게만 해당하는 고민이 아니라 거의 모든 아이에게 해당하는 고민임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저자는 "자녀나 제자들과 이야기할 시간을 갖지 못했던 부모와 교사라면 이 책에 쓰인 아이들의 고민을 참고해 자녀나 제자들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면서 "요즘 청소년들, 이런 고민이 있다고 들었는데 너도 이런 문제로 고민하고 있냐? 로 이야기를 시작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고 마무리했다. /장은성 기자



##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와 함께하는 힐링콘서트 개최

한국소리문화의전당(대표 서현석)은 지난 15일 연지홀에서 지역아동센터전북지원단(단장 박신애)과 공동으로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와 함께하는 힐링콘서트'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콘서트에는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가족을 비롯해 450여 명이 참여했다.

특히 이날 김관영 도지사와 국주영은 도의장 등이 영상 축사로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의 노고에 관심과 격려를 보내왔다.

서현석 대표는 "아이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내 자식처럼 아껴주고, 아픔복지 서비스 현장을 지키는 여러분이 계시기에 우리 미래는 밝다"며, 고마움을 전했다. /장은성 기자

## 남원창극 '방자, 춘향을 말하다' 상반기 공연 종료

남원 시립국악단의 2023년 남원창극 '방자, 춘향을 말하다'가 매회 만석으로 올해 상반기 공연을 마쳤다.

지난 5월 13일 첫 공연을 시작으로 7월 8일까지 매주 토요일 저녁 8시 광한루원 월매집에서 공연하였으며 총 8회 상반기 공연을 마쳤다.

남원시립국악단의 창극은 이미 관객들에게 믿고 보는 남원을 대표하는 문화관광 브랜드 공연으로, 특히 올해 창극 '방자, 춘향을 말하다'는 기존의 전통 판소리 춘향가에 방자의 캐릭터를 부각시켜 새로운 시선으로 춘향가를 해석하여, 작품 속에 담겨있는 다채로운 해학과 풍자를 관객들이 더욱 친근하게 만날 수 있어 회자를 거듭할수록 인기가 식을 줄 몰랐다.

최고령 방자 환갑이가 구수한 사투리와 입담으로 극을 이끌어 가며, 특히 변 사또가 춘향에게 수청 들라 하는 장면을 방자가 능청스럽게 혼자 연기하면서 장맛을 입고 도도하게 춘향 역할을 했다. 또 반대편으로 옮겨서 근엄하게 변 사또 연기를 하는 모습에 관객들이 웃음을 터트렸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시립국악단은 이 창극 외에도 올해 하반기 다양한 공연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 민속악을 중심으로 공연하는 △전통소리청은 9월 6일부터 10월 25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전 11시와 오후 2시 광한루원 원월정에서, 다양한 장르의 국악 버스킹이 펼쳐지는 △광한루의 밤풍경은 9월 1일부터 9월 28일까지 매주 금요일 오후 8시 광한루원 일대에서 공연한다. (9월 28일은 추석 특별 공연) 이외에도 올해 △한여름밤의 소리여행, △찾아가는 국악공연, △기획창극 반복사의 꿈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 한국전통문화전당, 우리놀이 마루달서 25~30일 우리놀이 가족캠핑 진행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도영)은 오는 25~30일 6일간 전국 최초로 조성한 정통놀이 문화 거점 공간인 우리놀이 마루달에서 우리놀이 가족캠핑 '놀이판타지' 행사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동아시아 문화도시 교류시기에 맞춰 특별히 한·중·일 동아시아 문화권 전통놀이 이색체험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우리놀이 마루달의 '비밀의 문'을 열려면 신나는 '놀이판타지'가 펼쳐진다는 주제로 진행되는 가족캠핑은 한중일 삼국의 놀이를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꾸며졌다.

먼저 △우리나라 전통놀이인 대형칠교와 산가지 △일본 후쿠와라이(福笑い)와 요요츄리(요요쥬리) △중국 팔각건과 찌엔즈 등 각 나라별 놀이미션이 진행된다. 특히 각각의 놀이의 재미를 더하기 위해 미션 수행 후 획득한 암호카드를 기념품 교환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가족캠핑 '놀이판타지'는 평일에는 전당 홈페이지(ktcc.or.kr) 온라인 사전접수를 통해 4가족이 2시간씩 총 3회를, 주말에는 선착순 현장접수를 통해 4가족이 1시간씩 총 6회 차로 각각 진행된다. /장은성 기자



김도영 원장은 "이번 가족캠핑 행사를 통해 동아시아 국가의 색다른 놀이문화를 경험해보고, 가족 간 화합을 도모하는 시간이 될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우리놀이 프로그램을 통해 일상 속 활력을 선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